

마음의 고향인 옛 서울

나 운 영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찾아갈 곳이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에게서는 고향이 없는 것만 같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 서대문 밖 미근동(의주로 1가)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서대문과 서소문의 중간 지점의 길가 집이다. 옛날에는 국상은 물론 부잣집의 장례를 지낼 때에는 노랑 옷을 입은 국악사들이 새납(날라리), 나발을 앞세우고 큰 북과 요령을 치면서 상여를 모시고 홍제동 화장터로 향하게 마련인데 나는 어렸을 때 항상 이런 광경을 보고 자라났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음악은 '대취타大吹打' 즉 국악기만으로 연주되는 브라스 밴드 음악이었다. 이에 그만 홀려서 홍제동 화장터까지 대취타를 들으면서 상여 뒤를 졸졸 따라갔다가 길을 잃은 일도 있었다.

한편 나의 선친은 생물학자였으나 국악에 심취되어 소위 아마추어 국악인(?)으로서 사랑방에 수많은 국악기를 모아 놓고 매달 두 차례씩 동호인들끼리 국악합주를 즐기셨는데 나는 세 살부터 여섯 살까지 몰래 사랑방에 들어가서 '영산회상' 전곡을 열심히 들던 생각이 지금도 난다.

내가 오늘날 '선 토착화·후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작곡에 몰두하게 된 것이 모두 어려서부터 국악을 들었던 때문인가 보다. 길가 집이라 때로는 일본 해군 국악대가 '군함 행진곡'을 신나게 연주하며 지나가는데 이 음악에 홀려서 충무로 입구에 있는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까지 따라갔다가 간신히 집을 찾아 돌아온 일도 있는가 하면 '구세군 노방 전도대'가 브라스 밴드로 찬송가를 부는 데 홀딱 반해서 난생처음으로 따라간 곳이 아현동 구세군 교회였다. 그 후부터 나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만 교회를 드나들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좋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내가 태어난 집이 길가 집인 덕택으로 국악·양악, 특히 성가를 들으면서 자라난 셈이니, 이 모두가 나로 하여금 음악을 전공하게 했고 또한 한국적인 교회음악을 주로 작곡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면 새 절(봉원사)이나 세금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한강 건너의 봉은사로 가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그래도 전대에 도시락과 사과를 싸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던 시절이 그리기만 하다.

서울에는 소위 관광명소가 많다고는 하지만 창경원의 동물 구경이나 '밤 벚꽃 놀이'가 가장 인상에 남기도 하며 종로 네거리의 야시장 또한 잊을 수가 없다. 야시장엘 가면 발 들여 놓을 데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붐비는 가운데 "십오 전에 두 가지"를 외치는 거리를 헤매던 생각이 나기도 하며, 관훈동에 자리 잡고 있는 '헌책방'을 뒤지는 재미가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나는 계동에 있는 중앙고보를 다녔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헌책방에 들러서 음악책·악보를 사가지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에 사 모았던 책들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책을 사 모으는 버릇은 중학시절부터였고 지금도 이 버릇만은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팔자인가...

한편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돌체다방'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곡을 감상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자연장',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악다방을 찾아다녔고, 나중에는 그런 곳에서 음악 감상 해설을 도맡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현대음악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하자면 '자칭 현대음악 전도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음악다방에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조선히otel 앞에 있었던 '공회당'과 시청 옆에 있었던 '부민관'이

다. 그때만 해도 이 두 곳은 가장 넓고 또 가장 이름난 음악회장이었다. 나는 여기서 일본의 '신교향악단'(지금의 N.H.K 교향악단의 전신)이나 만주에서 온 '하르빈 교향악단'의 관현악 연주를 들었고, 흥난파 · 계정식 · 안병소 · 안기영 · 현제명 · 정훈모 선생의 연주를 들으면서 음악가가 되려는 나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그래도 서울이라 크고 넓으니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겠지만 특히 일제시대에는 별로 갈만한 데도 없었던 것 같다. 네거리마다 파출소가 있고, 가는 곳마다 형사가 뒤를 따랐으며, 현저동에는 서대문 감옥이 있었고, 용산 쪽은 일본 군대 · 헌병이 득실거렸고, 서소문 고개를 넘어서면 중국인 아편쟁이들이 길에 누워 있어 대낮에도 혼자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고향은 늘 정다운 곳이요 그리운 곳인가 보다. 서대문 밖의 내가 태어난 길가 집은 도시계획으로 바깥채가 다 헐리고 사랑채의 목조 이층집만 남아 있는데 나는 웬일인지 발길이 그쪽으로 향할 때가 많고 직접 가지는 않아도 눈만 감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

여섯 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엄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지라 나는 대문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한 번 놀아보지도 못했고 항상 집에 틀어박혀 '유성기' 만 틀어놓고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마냥 즐겁기만 하고 마냥 추억의 이야기거리만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 내가 살던 고향이란 늘 즐겁고 그림기만 한가 보다. 추석이나 구정 때마다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서울 태생인 나는 갈 곳이 없어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하니 가고 오는데 고생할 일이 없어 편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거나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보면 역시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이 한없이 부럽기만 한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길래 이다지도 왈가왈부하는 것일까... 내가 태어난 집, 내가 살던 마을 만이 고향일까...

창경원의 밤 벚꽃놀이와 동물 구경 · 종로 네거리의 야시장 · 관훈동의 헌책방 · 돌체 음악다방 · 공회당과 부민관 · 서소문의 중국 사람 거리 등등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서울. 복잡한 서울, 더러운 서울, 무서운 서울, 각종 범죄가 판치는 서울보다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바로 마음의 고향인 서울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이 더욱 소중하기만 하기 때문에...

<월간 「빛」, 1991.11.>